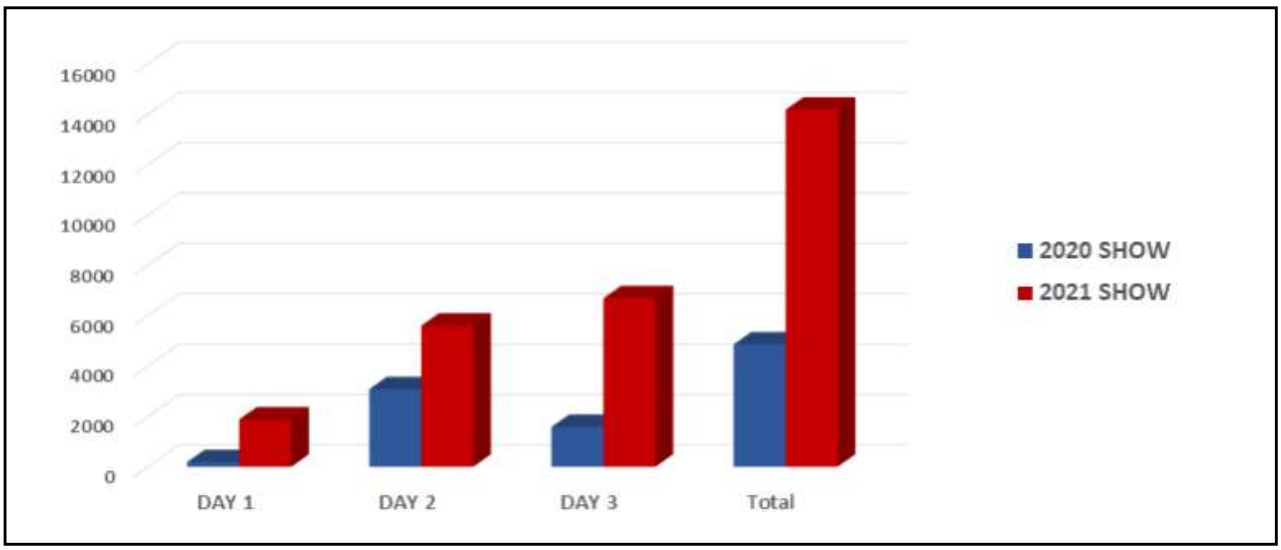
SIDEX 2021 결과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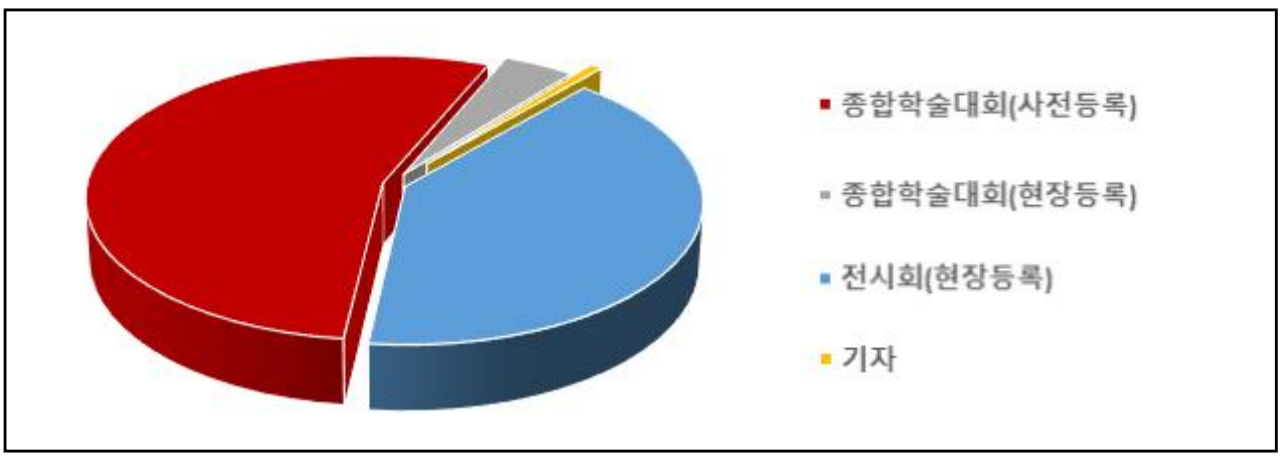
1. 연도별 참가자 수

	2020 SHOW	2021 SHOW	Year on Year
DAY 1	189	1,883	996.30 %
DAY 2	3,086	5,604	181.59 %
DAY 3	1,585	6,693	422.27 %
총 계	**4,860**	**14,180**	291.77 %



2. 분야별 참가자 수

구 분		참가자 수	비율
종합학술대회	사전등록	7,726	54.49 %
	현장등록	613	4.32 %
전시회	현장등록	5,738	40.47 %
기자		103	0.73 %
총 계		**14,180**	**100 %**



3. 개원의들의 임상능력을 향상,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56개의 강연 제공

'K-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'를 슬로건으로 선정한 이번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는 2일간 56개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. 임플란트 Live Surgery, 통합강연(소아치과•예방치과, 교정과•소아치과), 공동강연(교정, 임플란트, 디지털치의학), 온라인 해외연자 강연, 치과건강보험 등 SIDEX에서만 볼 수 있는 강연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.

또한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는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(ADA CERP)이 승인한 미국 보수교육점수 인정기관으로써 10개의 영어 동시통역 강연을 마련하고 최대 10점까지 미국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국내 치과의사들 및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.

4. 국내 152개사, 해외 9개사 참가한 제18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

올해 18회를 맞이한 SIDEX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하여 최신, 최첨단 치과기자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 Hall A, Hall C(20,716㎡) 에서 807부스가 참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

5.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

(1) Exhibitor Showcase (참가업체 기술세미나) 운영
부스 내에서 자체 세미나가 불가한 소규모 참가 업체들을 위하여 신제품이나 주력상품 등을 소개 및 설명할 수 있는 Exhibitor Showcase 장소를 제공하여 참관객 및 프레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(2) Media Center 운영
전시장 내에 Media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전시장 및 학술대회장 내에 다양한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.

(3) New Product Display Zone(신제품전시존) 운영
SIDEX 20201 행사 기간에 맞춰 신제품을 출시하하는 업체를 모아 자사부스 이외의 공간(전시장 Hall C 내부)에서 아트 갤러리 형식으로 New Product Display Zone(신제품전시존)을 운영하였습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상품권 배부처, 주차권 판매처 장소에 위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(4) SIDEX e-SHOP 운영
SIDEX 행사 전 파격적인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함으로써 참가업체들의 출품 품목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SIDEX e-SHOP을 운영하였습니다. 또한 첫 로그인 이벤트 및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학술대회 등록자들이 SIDEX e-SHO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6.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철저한 방역 지침 마련

(1) 학술대회 등록자 전원에게 방역 패키지(KF94 마스크, 손소독제 등) 제공
(2) 전시업체에 방역 패키지(KF94 마스크, 손소독제) 제공
(3) 전시장 및 학술강연장 입구에서 상시 비접촉식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운영
(4) 전시장 입구에서 통과형 소독 샤워기 운영
(5) 공사 및 철거기간 안심콜 출입명부 운영 (체크리스트 팔찌 배부)
(6) 스마트SIDEX를 이용한 모바일 문진 진행
(7) 전시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휴게 공간 테이블 아크릴 설치
(8) 거리간격 유지 안내를 위한 행사장 바닥 곳곳에 스티커 부착
(9) 전시장 및 학술강연장 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른 인원 제한